

인권강좌 : 국제법으로 본 정신대문제

강연자 : 박 원순 변호사

때 : 2월 22일 오후 7시부터

곳 : 버클리대학 Dwinell Hall 256호실

주최 :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 (STIK)

---

일본은 제이차세계대전의 와중에 우리나라, 중국, 대만, 필리핀등 아시아의 여러나라에서 수십만의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전쟁수행을 위해 연행하여 강제노동등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일은 꽃다운 처녀들을 일본군대의 성적 배설도로 삼는 군위안부로서 징발한 것 입니다. 아직도 진상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만명의 우리 여성들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정신대 (종군위안부)의 문제는 아직도 씻어지지 않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아픔으로 우리민족 모두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있으며 요즘 한일 양국간의 최대의 현안의 하나로서 등장하고있습니다.

지난 날의 비인간적인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아시아의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는 피해당사자인 아시아의 사람들 뿐아니라 온 세계를 통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얼마간의 돈으로 무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 불란서등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나찌스의 전쟁범죄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오늘날도 준엄한 추궁의 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반면 정신대, 생체실험, 시민에 대한 대학살까지 일본이 저지른 가지가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문제를 포함해서 거의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근간의 런던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의 연구성과와 여러 국제회의에서의 경험을 통해 국제인권법상의 정신대 및 일본의 전쟁범죄의 규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